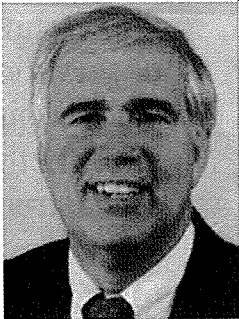


미국 수학자 2003년 일본 국제상 수상

2003년도 일본국제상은 카오스와 프랙털 등 복잡성 시스템의 기본을 형성하는 2개의 공통개념을 개발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. 그 중 한 사람은 메릴랜드 대학 수학 및 물리학 교수인 제임스 요크(James Yorke)이며 다른 한사람은 예일대학 수학자 베노이

트 만델브로트(Benoit Mandelbrot)이다. 요크는 1975년 비 선형 다이내믹 시스템의 수학적 연구를 표현하는데 카오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. 만델브로트는 프랙털의 아버지이다. 두 사람은 상금 40만 달러를 나누게 된다.



카네기 연구소, 신임 소장에 메서브 박사 선임

워싱턴의 카네기 연구소가 새로운 소장을 찾는데 2년을 보낸 뒤 마침내 현재 미국핵규제위원회(NRC) 위원장인 리처드 메서브(Richard Meserve) 박사를 소장으로 선임했다.

메서브 박사는 2003년 4월 생화학자인 맥신 싱어의 뒤를 이어 1세기의 역사를 가진 이 연구소를 관장

하게 된다. 올해 58세의 물리학자 겸 법학자인 메서브 박사는 대학원을 나온 뒤 연구실에서 일한 일이 없다고 털어놓고 있다. 한편 미국 국가과학메달 수상자인 올해 71세의 싱어 박사는 2003년 1월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 시 소재 화이트헤드 연구소 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.



복제인간 출산 주장 부아셀리에, 화학박사로 밝혀져

클로네이드사의 전무 브리지트 부아셀리에(Brigitte Boisselier)는 인간 복제인을 출산했다고 주장하여 유명해졌다. 그런데 오렌지 색 머리를 가진 46세의 이 프랑스 여성이 프랑스 다종과 미국 텍사스에서 화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. 1980년대 중반 그의 박사학위 연구의 고문을 맡았던 휴스턴 대학 분석화학자 칼 캐디시(Karl M. Kadish)는 '부아셀리에에 훌륭한 양심적인 학생' 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. 학위를 받은 뒤 프랑스로 돌아 간 그는 가스를 채운 병의 생산회사인 에어 리퀴드사의 연구 책임자가 되었다.

그러나 1993년 부아셀리에에 인간이 외계인에 의해 복제된 것이라는 라엘리 종교를 믿게 되었다. 그는 라엘리 종교인이 되기 위해 캐나다 퀘벡으로 건너간 뒤 1999년에는 미국 피츠버그 소재 뉴욕주립

대학에 통근하기 시작했으며 이 대학은 그를 연구직에 채용하려고 했다. 이 대학의 캐더린 라보아(Kathleen Lavoie) 학장은 '그가 화학을 잘 가르쳤다'고 말하고 있다. 부아셀리에에 2000년 가까운 해 밀턴 대학에서 보냈으나 라엘(Raelian)과는 관계가 깊어졌다.

그는 곧 클로네이드(Clonaid)의 전무가 되었고 10명의 복제인을 관리하게 되었다. 그는 인간의 복제에 앞서 3000개의 소의 난자를 대상으로 복제기술을 완성했는데 그 중에는 그 자신의 피부세포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. 그는 '나 자신의 많은 태아가 있다'고 주장하고 있다. ☞

글 원원복 | 과학저널리스트